

2017

가을 제63권 3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니카라과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자립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성경 말씀을 통한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정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

Contents

02 포토에세이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매일 읽을 수 있어요!”

04 커버스토리_니카라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니카라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08 2017 해외 성경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85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와 후원자님!

12 말씀을 만나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번역

16 모금이야기

“저는 선교사도 목회자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8 후원교회

백양로교회(르완다), 도림교회(카메룬), 사랑의교회(미얀마)

20 나의 삶을 바꾼 성경 한 권

“예수님이 저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상숭배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가 시드니에서 열리다
이슬람의 공격에도 중동지역 성서 보급량 57만부 증가

24 후원자 참여

가로세로 낱말퀴즈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7년 9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
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
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
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에클루 상탈은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디오로
신약성서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성경책이 없어서 교회에 가는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토고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에클루 상탈은 간절히 원하던
성경책 한 권을 품에 안았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기증받은 성경을 들고 있는 헤니베와 어머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니카라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두살된 아들 마티아스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날, 아드리아나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드리아나에게 어느 날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망 그리고 행복”이라는 니카라과성서공회의 성경 프로그램에 초청하였다.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으며 아드리아나는 자신과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위치 중앙아메리카 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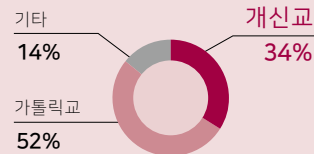
인구 약 600만 명



언어 스페인어 외



종교



Republic of Nicaragua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전해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치료를 마치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아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을 전할 거예요”



아들 마티아스와 성경을 읽고 있는 아드리아나

암병동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소망 그리고 행복”

니카라과성서공회는 300여 명의 목회자와 7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린이 암병동을 방문하며 성경을 반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방문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암병동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소망 그리고 행복” 자원봉사자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난 3년간 약 2만여 권의 성경을 전달하였고, 그 중 1만여 권은 암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니카라과성서공회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추가로 “믿음의 영웅”이라는 단편성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드리아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살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

니카라과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한 사역 “배우고 자라요”

니카라과의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지난 몇 년간 니카라과의 교회의 수가 15%에서 32%로 급성장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성경을 비롯한 교육 자료를 어린이들에게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를 돕고자 니카라과성서공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배우고 자라요”라는 성경 교육 책자를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교회에 지원하고 있다.



니카라과 지역 교회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성경 및 교육자료

니카라과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이다. 극빈층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인구 수의 78%에 달한다. 그에 따라 어린이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청소년 임신, 그리고 폭력집단 활동 등의 사회적 그늘에 노출되어 있다. 니카라과성서공회는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니카라과 아이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니카라과 여성 3명 중 한 명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꺼려하여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는 비단 사회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니카라과성서공회는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450여 명의 교역자를 훈련하고 120개 교회에 9,000여 권의 단편성서를 나눠줄 예정이다.**

“10년이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왔지만 이게 폭력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힘들 때면 교회로 찾아가 외롭고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성서공회를 통해 훈련받은 분을 만나 성경을 읽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느끼고 있는 점을 말할 계기가 주어졌고,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지금의 엄마의 모습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 이다나 산체스 부인



어린이 암병동 가족에게 전달한 성경

니카라과성서공회는 니카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변화되는 이 사역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성경을 전하고 있다. 성서공회의 사역을 통해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니카라과에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

니카라과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니카라과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여러분의 후원으로 **85개** 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7. 08. 17 기준)

아프리카 지역 **34**개국

가나, 가봉,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중동 지역 **17**개국

그리스,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알바니아
요르단, 이란, 이란인 디아스포라, 이집트
터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폴란드

중남미 지역 **23**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와 아루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피지, 네팔,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감사합니다!

2017년 상반기, 선교의 제약과 핍박이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735명의 후원회원님들과 220개의 교회들이** 약 **5천 9백만 원의 현금**으로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와 현금으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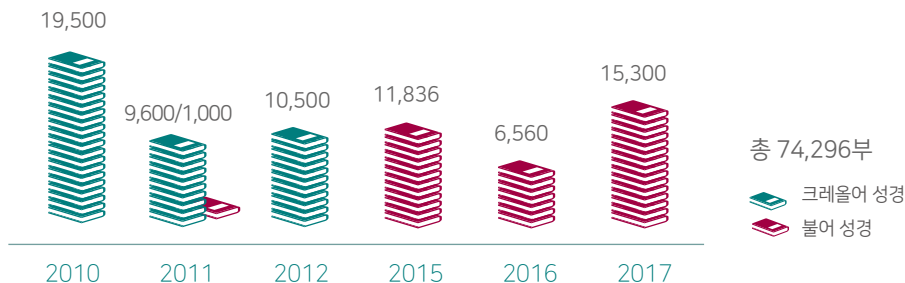
 735명 후원회원 **29,344,055원**
 220개 교회 **30,190,000원**
총 59,534,055원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와 후원자님!

후원회원들과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기증한 성경을 받은 해외 성서공회에서 감사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이티에서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후원회원들과 한국 교회가 아이티성서공회에 기증한 성경 내역(2010~2017년)



저는 아이티성서공회 총무 마그다 빅터입니다. 아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매년 우리는 한국의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성경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 교회는 우리 사역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하여 크레올어 성경과 불어 성경을 아이티 교인들과 교회에 반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진 이후, **교회와 난민캠프에 성경을 많이 배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찾아와 거의 매일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약 50,000부의 성경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의 성경공부 팀들을 위해 성경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 성경을 나눠줍니다.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29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문맹 퇴치를 위한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티는 문맹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포하여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약전서와 성경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으로부터 오는 후원 및 아이티의 사역을 돕고 있는 많은 자매 성서공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역에 도움을 주시는 한국 교회 및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번역

- 위클리프, 루터, 츠빙글리 -

조지윤(번역실 차장)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1483~1546년)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루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선향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1320~1384년)가 있었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1370?~1415년)가 있었다. 또 동시대의 종교개혁자로 스위스의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년)와 그 이후의 장 칼뱅(1509~1564년)이 있었고, 수많은 숨어 있는 개혁자들이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평생을 성경 연구에 헌신하며 모국어로 대중에게 설교하며 가르쳤다. 특히 이들 중 위클리프, 루터, 츠빙글리는 자신의 모국어로 직접 성경을 번역하였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성경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 루터조차도 20세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못해서이기도 했고, 양피지, 파피루스와 같이 값비싼 고급 재질에 필사된 것밖에 없어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1450년대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대량으로 성경이 인쇄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의 선향, 위클리프의 영어성경

옥스퍼드대학교의 교수였던 위클리프는, 탁월한 설교자이자 개혁가였다. 그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칙이 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1380년 8월부터 라틴어 신약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였고, 니콜라스 드 히어포드가 진행하던 구약 번역을 마무리하였다. 이것이 1382년에 영어로 번역이 완료된 최초의 완역성경이다.

실제로는 7세기 중엽부터 영어로 번역된

사본들도 있고, 위클리프 동시대의 다른 영어 사본들도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사본들은 라틴어 본문에 영어 번역과 짧은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였다. 그에 비해 위클리프의 영어성경은 관용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읽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위클리프가 죽은지 44년만인 1428년에 그의 시체를 꺼내 불 태웠고, 그 재를 잉글랜드의 스위프트 강에 뿌

렸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가 아닌 천한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후 위클리프의 영어성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잔혹하게 처형당했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6년 틴들의 영어성경이 인쇄되어 보급되기 시작했고, 1539년에 <큰성서>, 1560년에 <제네바성서>, 1568년에 <감독성서> 등에 이어 1611년에 <제임스왕역>이 발간되었다(각 역본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에 전시).

본격적인 종교개혁, 루터의 독일어성경

루터 또한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루터는 10개월 간 바르트부르크에서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 신약성서 전체를 번역하였다. 기존의 독일어 성경들이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과는 달리,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2판(1519년)에서 직접 번역하였다. 그것을 필리프 멜란히톤과 함께 원문 대조를 하며 다시 읽고 수정하여 <신약성서>를 1522년 9월 초에 완료하였다. 이 성서는 2년 만에 비텐베르크에서만

14회, 독일 전역에서 66회 인쇄되었다.

루터는 <구약성서> 역시 <손치노(soncino)판 히브리어 구약성서>(1494년)를 대본으로 삼아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였다. 1522년부터 1546년까지 출간된 <구약성서> 전체 혹은 부분 번역본은 430여 개 판본에 달했다. 루터의 성경 완역본은 16세기 초반에만 100만 부가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초 독일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3~4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루터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었는지 종교개혁의 반대자였던 요한 코클레우스는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이 성경이 너무 많이 인쇄되어 보급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번역 성경을 갖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모든 진리의 샘으로 여기며 열심을 다해 공부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달달 외우며 가슴에 품고 다녔다.” 루터성경은 당시에 여러 방언으로 나누어져 있던 독일어를 표준화시켰을 뿐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위클리프역의 인쇄본(1382년)



틴들역(1525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1483~1546년)

루터가 자신의 번역에 관해 여러 차례 설명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순수하고 분명한 독일어로’, ‘독일어의 정확한 구사 방법으로’ 등이었다. 특히 루터는 특수 용어를 번역할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는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희생 동물의 내장의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 푸줏간 주인을 찾아갔고, 보석들의 이름을 번역하기 위해 보석상을 찾아가었다.

루터 스스로도 매해 성경을 두 번씩 읽고 암송하였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 루터의 번역은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루터성경(1534년, 1700년 인쇄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취리히성경

1522년에 루터의 신약성서가 나오자마자 스위스에서는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 그리고 1524년에 츙글리가 중심이 되어 루터의 신약성서를 알레만어로 고쳐 출판하였다. 취리히대성당의 설교자였던 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2판(1519년)을 읽으면서 성경에 눈을 뜨게 되었고, 바울서신 전체를 원어로 암송할 정도로 원문 연구에 매달렸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구약 단편성경들이 출간되는 대로 알레만어로 출판하면서, 예언서와 시편, 잠언, 아가, 외경

은 나름대로 번역을 하였다. 1525년 여름부터 츙글리는 취리히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페 차이(말씀 전하기)” 모임을 만들어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었다. 그 결과 1531년에 <취리히성경>을 완역하여 발간할 수 있었다. 이 성경은 1534년에 완역된 <루터성경>보다 3년 앞선 것으로, 최초의 독일어 완역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취리히성경>은 스위스의 유명한 인쇄업자인 크리스토프 프로샤우어가 출판해서 <프로샤우어성경>이라고도 불린다. 프로샤우어는 종교개혁자들의 저술 약 800여 종과 성경 100여 종을 인쇄하였다. 그 결과 스위스에서 성경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성경 번역에 힘썼던 츙글리는 ‘성서의 원리’, 즉 성서우선주의에 기반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다. 그는 1523년 1월에 67개의 논지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공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이었다. 츙글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평생 성경 연구에 헌신했던 위클리프와 루터, 츙글리는 교황의 교권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이 성경 안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힘있게 개혁 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이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던 이유는, 소수의 성직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을 직접 자신의 모국어로 읽은 사람들은, 당시 종교, 사회, 정치, 문화, 경제를 옥죄고 있던 족쇄에서 벗어나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성경 번역과 보급은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시대 정신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츠빙글리(1484~1531년)

**“저는 선교사도 목회자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병하 장로

서병하 장로(충무교회[기성])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성서공회의 문서선교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였다. 2017년 6월, 85세의 나이로 20여 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한 서병하 장로는 그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미군에게 받은 성경 한 권이 선교의 마음 일으켜

“1950년 6.25 전쟁 당시 해병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 옆에는 미군 해병대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갖고 있던 작은 신약성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서병하 장로는 미군이 전해준 신약성서를 간직하며 해외에 성경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1996년 12월, 교단에서 대한성서공회 문서선교 자원봉사자로 활동 제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그간 해외에 성경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문서선교 자원봉사자의 자리는 유독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500여 개 교회에 찾아가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 알려

서 장로는 지난 20년 간 약 1,500여 개의 교회를 순회하였다. 전국 각지 섬이든 산이든 개의치 않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부딪혔다. “아직 대한성서공회의 사역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성경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여 세계 곳곳에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서 장로는 웃기도 하고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하였다. 한 교회 한 교회 떠올리고, 후원자님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상황이 어려운 교회에 방문할 때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해외에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소개할 때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지런히 사역을 널리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간혹 그분들이 생각나서 안부 전화를 합니다. 꾸준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늘 더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우리 모두가 선교사

“위 말씀은 저의 신조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여 성경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 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문서선교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은 끝났지만, 서병하 장로는 힘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역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한 매 순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성경보내기 사역을 전한 서 장로는 전국의 후원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백양로교회(르완다), 도림교회(카메룬), 사랑의교회(미얀마)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르완다에 성경을 보냈습니다!

-키냐르완다어 성경 11,080부



6월 14일, 백양로교회(담임 김태영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키냐르완다어 성경 11,08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백양로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하던 중 르완다성서공회에서도 보급할 성경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온 교우들이 성경 보내기 헌금에 동참하여 7천 2백여 만 원을 모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김태영 목사는 “세상의 수많은 책보다도 한

권의 책, 유일한 책, 성경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르완다가 치유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전으로 인한 아픈 기억들로 고통받는 르완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길 소망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카메룬에 성경을 보냈습니다!

-불어 성경 11,904부



7월 9일, 도림교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카메룬에 불어 성경 11,904부를 기증하는 성경전달 및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도림교회는 2015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13,600부, 2016년 토고에 불어 성경 6,000부, 수리남에 네덜란드어 성경 2,684부를 기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성경이 부족하여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메룬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였

습니다. 정명철 목사는 “이만영 장로님의 헌금으로 성경을 보내 해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사역이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 대학부의 사랑으로 미얀마를 위한 성경을 보냈습니다!

-미얀마어 성경 2,75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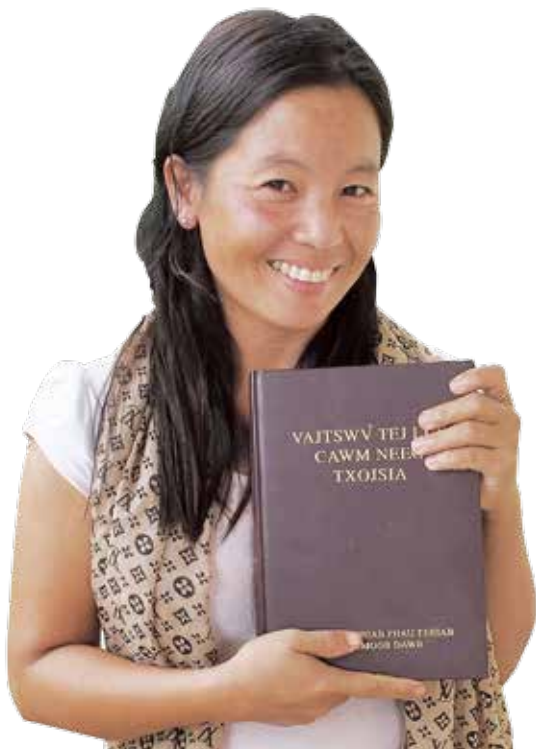


7월 7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대학부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미얀마어 성경 2,750부를 보내는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사랑의교회 8개의 대학부 청년들은 고난 주간동안 금식, 커피 값 아끼기 등을 통해 금액을 모아 2015년부터 오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미얀마 고아원 돕기’를 하고 있는 중, 올해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 후원에 동참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성경을 보내며 사랑의교회 대학부 팀장 엄장윤 목사는 “우리는 성경이 많지만 여전히 성경을 갖지 못하여 갈급해 하는 지구촌 이웃들이 많습니다. 사랑의교회 청년들이 보내는 성경으로 미얀마의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미얀마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라오스 몽족의 누송

“
**예수님이 저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상숭배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

라오스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Hmong)족의 누송은 부족의 다른 소녀들처럼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여덟 명 두었지만 아들만 공부를 시켰고, 딸들은 그냥 집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누송은 동생들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누송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병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 우연히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몽어로 된 성경을 주었지만 누송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 본 적이 없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누송에게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에 가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거기

서 누송은 6개월 동안 몽어를 배워 공부하며 믿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누송의 몸은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때론 정신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 동안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된 누송은 매일 기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로마서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몽족은 샤머니즘을 믿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여러 개 있어서 영혼이 떠나가거나 악령에 의해 납치가 되면 그 결과로 질병에 걸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당이 집을 방문하여 주술행위를 행합니다. 일 년 전 누송의 어머니도 몸이 아팠고, 다행히 그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식구들은 여전히 무당에 의존했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가족들을 떠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누송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몽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송은 언젠가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가 시드니에서 열리다



2017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의 회장

각국 성서공회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프로젝트 교류회의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 호주성서공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이전까지의 회의가 미자립성서공회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에 대해 협력을 제안하는 일대일 방식의 프로젝트 제안의 장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당일 정해진 주제에 따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실례들을 소개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크게 성경과 문자교실, 프로젝트의 대상, 펍박받고 있는 교회, 교회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디지털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네 번째 날에는 성서공회가 어떻게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갈 것인지에 자문하며 성서공회 사역의 교회 협력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슬람의 공격에도 중동지역 성서 보급량 57만 부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 성경 약 3,429만 부가 반포되었으며,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40만여 부의 성서가 반포되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에 휩싸인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2015년에 비해 57만 부 가량 증가한 298만 여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방글라데시성서공회 담당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에서 성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것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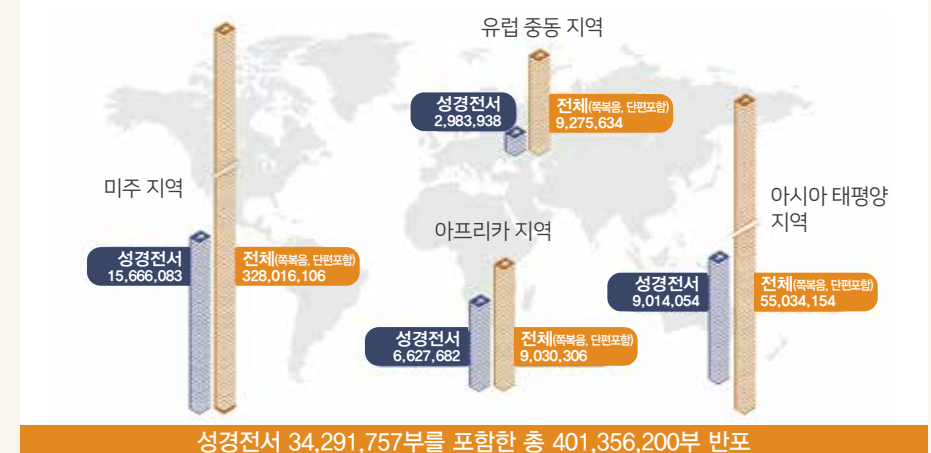
았습니다.”라고 하며 성서 보급 증가의 변화를 이야기 했다.

전체 성서 보급 대비 성경전서 반포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은 전체 성서 자료 중 약 73%인 662만 여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이는 2015년에 비해 약 94만 부 가량 감소하였고, 전체 성서 보급수 역시 지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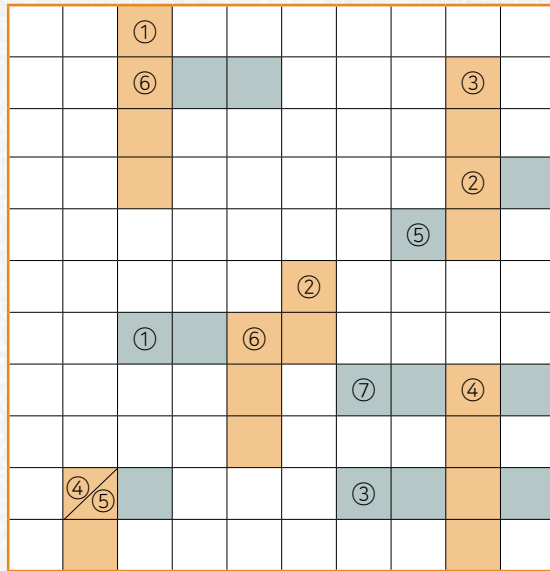
미주 지역은 2015년에 비해 약 91만 부 가량 증가한 1,566여 만 부의 성경전서를 포함한 전체 성서 보급수가 3억 2천여 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하였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에 비해 약 63만 부 가량 감소한 901만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2016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출처: 2016년 성서 반포 보고 (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6),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가로퀴즈]

- 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시니이다 하매(막 8:29)
- ②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과 같습니다(마 13:33)
- ③ ****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 ④ 예수님은 원수를 **하라고 하셨어요(마 5:44)
- 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셨다고 했어요(욥 2:28)
- ⑥ 어린양의 혼인잔치 때 성도들은 거룩한 *** 옷을 입는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계 19:8)
- ⑦ 라오스의 소수민족은 ****을 믿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세로퀴즈]

- ①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에서 기도하셨어요(막 14:32)
- ② 성전은 만민이 **하는 집이에요(막 11:17)
- ③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말 ****(마 1:23)
- ④ 암병동 어린이들과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성서교회(본 호 커버스토리를 확인해주세요)
- 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 ⑥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집사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행 7:59~60)

모든 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정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답]

'성경 보내기(문서 선교)'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주소			
약정금액	매월	원(성경 권)	이메일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소식지 이메일 요청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체일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행명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예금주 생년월일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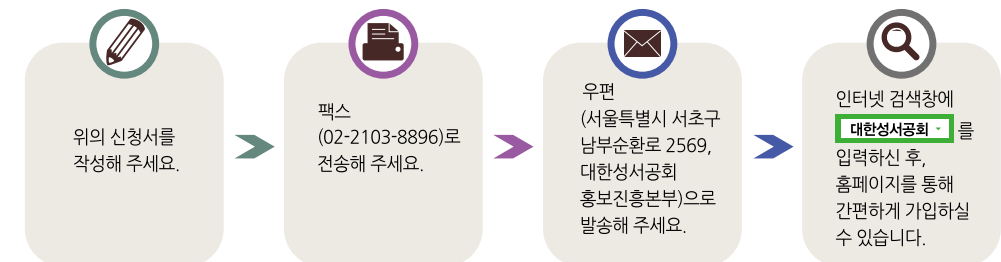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성경을 보내주세요!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지역은 목회자들조차 성경 한 권을 갖기가 어려워 한 권의 성경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읽고 있습니다.

분책한 성경을 바꾸어 읽기 위해 카누를 타거나 수십 리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영혼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이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책된 성경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여성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